

1031

※ 공개란 ※

" 법만 지키면 사랑은 제한같은거 없어요! "

「 두근♪ 사랑의 불꽃 나가신다! 」



이름

우노 사키리 / 得籠崎理 / Uno Sakiri

뛰어난 화살대의 날카로운 산말의 이치

학년/나이

2학년 / 18세

키/몸무게

162cm / 50kg

10대 여성 상위 25%(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_ BMI19.05정상

**외관: ◆다운로드는 이쪽에서 부탁드립니다◆**

정리가 잘 되어있는 듯 단정하고 깔끔해보이는 연망고색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얇고 길며 허벅지 중앙까지 오는 장발의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양갈래로 위쪽으로 묶어 귀여움을 더 했고 양갈래를 할때 고정하는 머리 리본의 색은 검정 색 입니다. 검정색으로 잘 고정해 양증맞은 머리카락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부톤은 하얗고 웬톤이며 눈매는 둥글게 쳐져있습니다. 눈 양 끝쪽은 붉은색 혈이 돌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다면 예쁘고 깨끗한 흑안을 가지고 있으며, 반짝하고 투명한 눈으로 보입니다. 코는 조금 높아 보통인 편 이며, 입술은 약간 붉은 기운이 돌고있습니다. 얼굴의 형은 전체적으로 계란형태를 띠고있으며 목이 조금 긴 편 입니다. 옷은 단정하게 교복을 똑바로 잘 입고 있으며 아래에는 민무늬의 흰 양말과 고동색의 유광구두를 신고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꿀길잡이 새 라는 느낌의 아이 입니다.





**머리카락**



**교복포인트**



**양말과 운동화**



**눈(흑안입니다!!)**

**성격**

**박애주의자 | 산만하다 | 얼렁뚱땅하다**

**박애주의자**

*박애주의란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국가적 이기심 또는 종교적 차별을 버리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주의. 이를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박애주의자 이다.*

모두를 똑같이 아끼고 좋아하는 사키리야 말로 진정한 박애 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랑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편 이기 때문에 박애주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고있지만 그 이상 주지 않는 것은 잔인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키리는 그런 것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어도 평온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동등하게 대해줄 뿐 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누군가 하나는 슬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버리고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랑은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요! 남을 사랑하되, 자신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주지 않고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다같이 아니으면 사랑은 없다는 것도 말이죠. 온 인류는 사키리의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산만하다**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사키리는 산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리저리 잘 뛰어다니기도 하고 질서나 자신에 대한 통일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할때는 모두 동일하게 대해주는데, 본인에 관해서는 통일성없고 어지럽히는 느낌입니다. 이리저리 돌아 다니면서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 산만한 느낌이지만 질서를 잘 안지키는 것도 맞기도 하지만 학교 규칙을 엄청 어긴다거나 교복을 잘 안 입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신이나 기분이 산만한 것 이니까요. 적어도 그냥 복도를 뛰어다닌다거나 우다다 다니는 느낌으로 끝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의 산만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 얼렁뚱땅하다

남을 엉너리로 슬쩍 속여 넘기게 되다. 또는 어떤 상황을 얼김에 슬쩍 넘기다.

실수나 잘못을 해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싫어하는 상황에 빠지면 회피를 해버립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해버리는데에 엄청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냥 싸움을 싫어 해서 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바로 넘겨버립니다. 물론 남의 싸움에서는 조금 말리겠지만 말이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사키리는 개인적인 질문을 받더라도 이야기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또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모든 상황을 슬쩍 넘겨서 자기와는 관계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느낌으로는 어리버리한 느낌도 있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얼렁뚱땅 쉽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 특이사항:

**생일** | 11월 14일, 탄생화 소나무(불로장생)와 탄생석 라벤더 제이드(약간의 소문)입니다. 별자리는 천칭자리입니다. 11월 14일에 태어났지만 자신의 생일은 그렇게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일을 왜 안 챙기냐고 말을 한다면, 귀찮아서 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왜 특별한지 모르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회피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혈액형** | 혈액형은 RH+B 형입니다. 하지만 혈액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뭐 B형이 다혈질이라는 등... 유사과학의 이야기 말이죠. 그런 것을 믿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라며 오히려 반대로 조언을 해줍니다.

**좋아하는 것** | 좋아하는 것은 아기자기 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티커 라던지 리본 같은 것들이요. 음식 취향중 좋아하는 것 이라고 한다면, 당고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떡류를 좋아하는 편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당연히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랑은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랑도 그 사랑 만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에 걸리기만 해봐요 아주 끔찍하다고요! 저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거는 완전 나쁜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것** | 싫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지를 무척이나 싫어하고 편식합니다. 야채류를 잘 안먹어 혼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지만, 정말 가지 만큼은 못 먹겠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만지거나 보는 것은 상관 없지만 입 안에 넣는 것 만큼은 참아달라고 할 정도이죠. 그리고 젤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연한 것이 둘다 물컹하고 씹히는 것이 정말 기분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계절이 있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이 싫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을 맞춰줘야 할지 몰라서 하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취미나 특기** | 취미는 시집 모으기입니다. 어떤 시집도 좋아하며 선물을 해준다면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또한 다이어리 꾸미기, 약칭 다투를 무척이나 잘하고 좋아합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 이니까요. 의외로 섬세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기로는 팔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의외로 팔의 힘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 가족관계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키리를 무척이나 이뻐하고 아깁니다. 사키리도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사키리는 친구 관계처럼 무척이나 친합니다. 사키리도 그런 아버지를 무척이나 잘 따르고 아버지와 연락을 자주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와 서는 잘 보지 못하니까 더욱 더 연락을 자주하게 되었다고 사키리는 이야기 합니다. 사키리는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아주 멋지고 특별한 가족에 라고 이야기 합니다.

**말투** | 반말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쓰지 않는 신기하고 이상한 말투입니다. 느긋하게 이야기 하다가도 랩을 하듯이 빨리 말하기도 하고 딱딱하게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정말 말투에 대한 억압 받지 않은 느낌입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하며 팬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덜 합니다. 물론 평소에는 국물도 없지만 말이죠. 자본주의냐는 소리도 아닌 그냥 학교 안에는 다 아는 사이기도 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손의 사용 방향** | 사키리는 왼손잡이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고쳐주려고 했지만 사키리가 싫다며 편한대로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어렸을때 누구에게 강요당한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하게 자신의 고집으로 왼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할때는 불편하지만 다들 때에는 왜 불편한지를 모르고 못 느낍니다. 오른손을 사용하면 구불구불한 글씨가 나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왼손을 사용한 글씨체는 정말 딱 반듯한 글씨체가 나옵니다.

**우노 사키리는** | 첫 인상은 참 차분해 보이고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냥하고 다정 할 것 같아 보이죠. 다만 입을 여는 순간 그것은 완전 산산조각 납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더욱 말이죠. 지루하지 않도록 완전 신나게 이야기 합니다. 듣다보면 눈이 핑글핑글 돌아갈지도 모르지만요. 참고로 사키리는 애정표현이 많은 편입니다. 안겨있고 안아주고 손잡고 팔짱을 끼며 자주 뛰어들어 안아주기도 합니다.

선관:

선관 동시 합격 여부: x

(선관이 합격하지 않아도 합격하고 싶습니다.)

## ※ 비공개란 ※

유닛 로고: [☑다운로드는 이쪽에서 부탁드립니다☒](#)



유닛 이름:

dernière lettre \_ 데르니에르

유닛 설명:

치오 사쿠가 이끄는 유닛. 마지막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편지는 새로운 시작을 뜻할 수도 있겠죠. 모든 끝은 새로움이라는 게 존재할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1학년이 죽음을, 2학년이 환생을, 3학년이 탄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생설화(再生說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편지를 전하러 가봐요.

유닛 인원: 4인

유닛 구성원:

(L) 치오 사쿠

소메야 히나

우노 사키리

카츠시마 나유

후가입 가능 여부: X

## ※ 비공개란 ※

비밀 설정

우노得籠 집안에 관하여

우노집안은 오래전 대대로 부터 활을 다루던 집안입니다. 활을 자신의 신체처럼 다루고, 예의의 칼을 몸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정중하고 팍잡은 듯한 집안입니다. 이름부터 화살대가 들어가며 어릴 때 부모님의 문제로 잠깐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맡겨졌을 때, 정말 뼈 깊이 활을 배우고 왔습니다. 활은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의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부터 활을 잡아오며 지금도 활을 그냥 들어서 잘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활을 잘 씁니다.

성격상 전혀 활을 쏠 것 같지 않은 여기저기 잘 뛰어다니며 **산만한 성격이지만, 활을 잡는 순간만큼은 다릅니다.** 활을 잡은 사키리는 차분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집중을 하니깐요. 누가 말을 걸어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활과 화살에게만 집중을 하며, 자신의 몸이 활 처럼... 즉, 화살을 쏠 수 있는 대 인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만날 때 마다 예절에 대한 이야기도 받으며 활에 관한 수업이자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활을 쏘는 자세라던가 연습을 시키며 아이들이 아닌 궁도선수나 정말 활을 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키리는 이를 배운 예의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의 꿈은 '아이돌'이 되는 것 이니까 말이죠.

본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에 관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영원히 할 수 없는 직업이니까 아이들 활동을 하면서 궁도를 포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그만 두게 된다면 바로 자신들의 곁에 와서 궁도하며 가문을 잇기를 바랍니다. 그러리라 약속을 하고 아이들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더 응원해주는 분들 입니다. 물론 가끔 취미로 궁도를 하러 본가에 놀러가기도 합니다.

### 우노 사키리의 부모님에 관하여

사키리는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영향이자 우노라는 성을 받은 이상 활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부모님과 싸우며 강제성을 벗어나 지금은 생태학 교수로서 대학을 다니며 연구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며 바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키리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잘 맞지 않았고 서로의 길에 서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까, 앞을 응원해주며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잠시 몇달동안은 친가에서 사키리를 돌봐주었습니다. )

이혼을 하더라도 친구처럼 연락을 가끔 하면서 지내고 사키리도 어머니를 보고 한달에 몇번씩은 얼굴을 보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양육비도 똑바로 보내주며 사키리와 식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사키리를 무척이나 아낍니다.** 아무리 바쁜 대학생살이고 늦어서 돌아와도 사키리에게 오늘 하루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주기도 하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이돌이 되고싶어 사유리 여학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잠시 고민을 하셨지만 사키리를 위해 입학의 해도 좋다며 응원하고 등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궁도를 딸이 하는 것 보다 딸이 하고싶은게 생겼을 때 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숙사라는 점에서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연락을 자주 하겠다는 조건하에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렸던 꿈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키리는 이에관해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지망하기도 했지만, 아이돌이라는 이름에 직업에도 이끌렸습니다. 지금 아이돌을 하는것은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라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키리에게는 즐거운 일이죠.

### 우노 사키리에 관해

**우노 사키리는 사실 사랑에 대한 큰 생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사키리 컨셉 이라는 것 이죠. 사랑을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등 ' 자기~ ' 라고 부르는 애칭들도 전부 컨셉입니다. 예초 당시 우노가의 장녀로서 정신차리고 예의를 지켜야 하겠지만 "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는 좀 색다르게 가보자 "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연기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차분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당당해 질 자신이 너무 좋아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광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사랑조차 해본적 없으며 애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김적도 없습니다. 정말 암전하게 살기도 했고 사랑은 부모님으로 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았던 사키리니깐요. 최근엔 이런 본인이 너무 좋아 사랑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닝 IF:

### 평소에는

평소에 아이들을 부를때의 호칭을 '자기' 라고 부를 예정입니다.선배와 후배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호칭은 자기이며 이름을 알 경우에는 이름+자기 라는 호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할때는 상대의 기분을 딱히 신경쓰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 인지 싫어하는 티를 내도 아아~ 왜그래~ 같은 말로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입니다. 만일 자신을 더 좋아하는 티를 내준다면 눈을 반짝이며 너무 예쁘이구나! 하며 마구 칭찬해 주고는 웃으며 다시 지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에 광적인 컨셉이다보니에 사랑은 멋진 것 이라고 이야기 하고 다닐 겁니다. 산만한 성격은 이를 더 강조하게 되어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럴 때 일수록 더욱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겁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도 분명 자기와 같은 사랑을 ,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것을 알고 이야기 할 테니까요. 물론 사이비라던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노 사키리는 그냥 컨셉이자 모두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좋은 것 일겁니다. 다른 광적인 느낌도 아닌 단지 그 이유겠지요.

### 아이들의 갈등

우노 사키리는 싸움을 멈추게 하는 스타일 입니다. 원래 예의를 잘 지켜야 했던 집안이라는 자신만의 느낌이 없지 않아 싸움은 예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키리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아이 입니다. 사랑을하는 그녀에게 있어 싸움의 사랑도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싸운다면 사랑을 지키지 못 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싸움을 말립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은 소중한니까요. 이것은 우정의 사랑도 모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견과 아이들의 갈등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짓이 아님에 , 모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이라면 오해를 풀려고 노력 할 것 입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며 진정하고 모두의 의견을 듣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이야기 할 것 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들어줄때 까지 크게 이야기 할 것 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억울한것은, 오해하고 미움 받는 것은 싫어할테니까요. 만일 이 이야기가 예를 벗어나는 행위 라면, 거기서 멈춰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뒤 돌아 그들의 대한 사랑을 애증으로 변화시킬것 입니다.

### 본인이 화가날때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연기를 딱히 지금 들킬 생각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더 웃으면서 남의 기를 박박 긁을 것 같습니다. 박애주의자의 미움을 받는것은 정말 괴로울 것이죠. 모두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받는 미움이라... 이는 정말 대단하면서도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키리는 연기하고있으니까요. 미워하는 인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다른식으로도 다가가 보기도 하며 여러가지를 하는데... 이럼에도 미움받는짓을 한다고 한다면 사키리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버립니다. 본인은 엄청 참고 다른식으로도 해보는 등 노력을 했지만 상대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사키리를 미워하고 화나게 만든다면 이는 정말 사키리의 분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 ✿ 오너란 ✿

닉네임: 초복 (초코 꼬북칩)

해당 여부: X

오너 연락처: @chobuk\_Lu

*Happy Halloween*